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합동 브리핑(37차)

금일 주요 브리핑 내용

- 제주도, ‘생활 속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
- 대구·경북지역 항공편 입도객 평시 수준 유지
- 제주↔일본 직항 항공편 오늘부터 운항 중단
- 노인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 22일까지 휴원
- 제주도, 코로나19 검체검사 역량 총동원 신속 대응
- 제주도, 어린이부터 기업까지 코로나19 극복 동참 이어져
- 제주도 신천지 관련 유증상자 1명 ‘음성’

2020. 3. 9.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20.3.9. 일일 통계 브리핑

□ 국내 발생현황 ['20.3.9. 0시 기준]

○ (제주) 확진환자 4명 (격리해제 1명, 격리 중 3명)

구분 (단위: 명)	총계	확진환자				유증상자			자가 격리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음성	
제주	1,343	4	1	3	0	1,339*	80	1,259	36
일일 증감	0	0	0	0	0	+33	+5	+28	-17
전국	196,618	7,382	166	7,165	51	189,236	17,458	171,778	

* 이 중 100건은 제주가 주소지이나 타 지역 거주 중인 주민

□ 입도객 현황 ['20.3.8. 기준, 잠정치]

○ 총 입도객: 13,672명 (작년 같은 날 대비 △64.7%, 전일 대비 △15.6%)

구분(단위: 명)		총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중국	일본	기 타
일계	2020년	13,672	13,533	139	10	2	127
	2019년	38,765	34,746	4,019	2,314	226	1,479
	증감률	△64.7%	△61.1%	△96.5%	△99.6%	△99.1%	△91.4%
누계 (2.23.~)	2020년	233,377	228,429	4,948	364	579	4,005
	2019년	528,233	469,924	58,309	32,296	3,600	22,411
	증감률	△55.8%	△51.4%	△91.5%	△98.9%	△83.9%	△82.1%

○ 대구·경북지역 입도객 현황

- 대구-제주 항공노선(2편): (도착) 219명 (출발) 374명
- 대구·경북지역 출신학생 입도: 2명 (2.6. 이후 누계 : 118명*)
- * 7일 입도 2명 추가 확인

□ 공항만 발열감지 운영현황('20.3.8. 기준)

구분 (단위: 명)	열감지자 총계	재측정 후 귀가 (37.5°C이하)	문진상담(37.5°C이상)		
			소계	진료상담 후 귀가조치 (의심증상 無)	선별진료소 이송 (의심증상 有)
일계	25	22	3	2	1
누계(2.3~)	1,421	1,320	101	78	23*

* 이송대상자 23명 중 17명 단순발열로 귀가, 6명 검사(음성5, 검사 중1)

□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20.3.8. 기준)

구분(단위: 명)	총계	제주도민	타 지역 주민(제주 체류)
일계	4	4	0
누계(3.7.~)	21	19	2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20. 3. 9.(월)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710-3800
		통제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10-2800
동영상 (웹하드): 있음■ 없음□		사진 : 있음■ 없음□		후속자료: 없음

제주도, ‘생활 속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

- 시도지사협, 9일 오후 ‘잠깐 멈춤’ 호소문 발표 예정... 전 국민 협조 당부 -
- 향후 2주 방역 ‘골든타임’ ... 이동·접촉 최소화로 코로나 확산 방지 -

□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인 ‘잠시 멈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

○ 전국 17개 시·도지사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대구시장 권영진)는 앞으로 2주가 코로나19 확산 차단 골든타임으로 판단, 사람들 간 이동·접촉 최소화를 위한 ‘잠시 멈춤’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 이에 앞서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진행되는 코로나19 합동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적극 실천을 위한 도민의 자발적 협조를 지속적으로 당부해 왔다.

○ 특히, 도는 타시·도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취약지대 방역 강화와 함께 소규모 집단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실행 중이다.

□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9일 오후 ‘잠시 멈춤’ 캠페인과 관련 호소문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 이날 발표하는 호소문에는 사람들 간 접촉과 이동 최소화를 위한 실천 수칙으로 ▲전화·인터넷·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외출 자제 및 모임 연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관련 문의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고윤성 기획팀장 064) 710-2231

[붙임] 대한민국시도지사 긴급 호소문(안)

사회적 거리두기 「 잠시 멈춤」 참여로 코로나를 차단합시다

코로나19 사태가 중차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을 위한 혼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확산이 현실이 되면서 국민적 불안과 공포가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2주가 코로나19 확산차단의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지역사회 내 바이러스 확산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대책은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28, 29일 대한의사협회와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에서는 국민 모두가 방역주체로서 참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하루빨리 일상의 회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잠시 멈춤 캠페인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잠시 멈추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처럼 활동해서 얻는 이익보다 잠시 멈춤을 통해 얻게 될 일상 회복속도와 사회적 이익이 더 클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2주간의 잠시 멈춤 실천수칙

첫째, 나는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하는 등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겠습니다.

둘째, 나는 전화, 인터넷, SNS로 소통하며 지인과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하겠습니다.

셋째, 나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로 개인 위생수칙을 늘 지키겠습니다.

의료·방역진과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잠시 멈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시도지사들 역시 코로나 위기가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3월 9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시장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경기도지사 이재명 강원도지사 최문순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경상남도지사 김경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구·경북지역 항공편 입도객 평시 수준 유지

- 제주 방문객 하루 평균 300명 내외... 선별진료소 검사 21명 이뤄져 -

□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기준 대구-제주 간 항공기 1일 이용객은 하루 평균 300명 내외로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 여행이력이 있는 도민과 입도객을 대상으로 한 검사는 총 21명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지난 5일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한 도민과 제주 체류객을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 방침(하단 참고)을 밝힌 바 있다.

제주국제공항 대구-제주 간 항공기 운항 제주출발 및 입도 현황 (단위: 명)								
	3/1	3/2	3/3	3/4	3/5	3/6	3/7	3/8
제주 출발	241명	296명	297명	262명	311명	321명	319명	374명
제주 도착	238명	361명	358명	358명	357명	357명	304명	219명

○ 지난 주말과 휴일(7~8일) 대구·경북지역 출신 학생의 입도는 4명으로, 지난 2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총 118명이 제주에 들어왔다.

- 이 중 91명의 학생들이 최대잠복기 14일을 경과해 자율적 관리에서 해제됐고, 27명*이 대학별 모니터링 아래 자율 관리 중이다.

* 제주대(격리기숙사11, 자가 등 11) 관광대(자가2), 한라대(대학 자체숙소 2, 자가 1)

○ 대구·경북지역 여행이력이 있는 도민과 체류객 21명(도민 19, 대구·경북 거주 2)이 6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은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 제주보건소, 제주서부보건소, 제주동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 서귀포서부보건소, 서귀포동부보건소

○ 도는 지난 5일부터 대구-제주노선 항공기의 경우 승무원과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진행한 결과 9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모두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대구를 방문한 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도는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의 입도객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 경북지역 긴급지원 대상

(검사당일 기준 14일 이내 대구, 경북 방문이력이 있는 무증상자)

- 1순위 : 주민등록상 주소가 2월21일 이전 제주도민으로 되어 있는자
(*2월 21일 기준은 우리도 첫번째 대구 관련 확진자 발생)
- 2순위 : 제주도 주소를 갖지 않은 자(도외)로 대구, 경북 방문이력이 있는자 중
1주일 이상 체류자(체류기간 증명확인 항공권, 영수증 등 확인 전제)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공항공충지원단 공항공충지원과 한영식 총괄지원팀장 064) 710-4841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064) 710-8820

제주↔일본 직항 항공편 9일부터 운항 중단

- 한·일 관계 악화속 티웨이항공, 제주-나리타노선 4월 28일까지 중단 예정 -
- 제주도, 무사증 중단 따른 전세기 취소 피해업체 지원 방안 등 구상 중 -

□ 제주와 일본을 잇는 직항노선이 오늘(9일)부터 일시 중단됐다.

□ 티웨이항공이 제주~나리타를 잇는 노선을 오늘(9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중단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유일하게 제주와 일본을 오가는 하늘 길이 끊겼다.

○ 그동안 제주발 일본행 직항은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에서 3개 노선이 운항했으나, 후쿠오카 노선은 대일관계 악화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비운항을 결정했다.

○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로 오사카 노선이 지난 2월 29일부터 운항을 잠정 중단한 데 이어 이번 양국 간 규제 강화로 도쿄 노선까지 운항을 중단하게 됐다.

노 선	항공사	운항횟수 (도착)	편당 이용객		비 고
			1월	2월	
제주-후쿠오카 (후쿠오카)	제주항공	주3회	-	-	‘20.1.1일부터 비운항
제주-오사카 (간사이)	티웨이	주5회	107명	83명	‘20.2.29일부터 비운항
제주-도쿄 (나리타)	티웨이	주3회	133명	108명	‘20.3.9일부터 비운항

○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제한 및 2주간 격리 시행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효력 정지와 입국 절차 강화로 맞대응함에 따라 국내 항공사 대부분이 일본 노선을 중단했다.

- 대한항공은 오는 28일까지 인천-나리타 노선을 제외한 일본 전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고, 제주항공은 인천-나리타, 인천-오사카 2개 노선만 유지한다.
-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이스타항공은 일본 전 노선의 운항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 제주도는 현재 관광 시장 재개시를 대비해 힘을 모으는 중이다.

- 도는 어려움에 직면한 관광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에 나서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위생 방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관광지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 또한 무사증 제도 일시 중단에 따른 전세기 취소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한 손실 보상 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 사태 안정화 시 국제 직항노선 조기 복항을 위해 항공사와 공동 마케팅 방안 등도 구상하고 있다.

※ 관련 문의 : 관광국 관광정책과 고희신 관광마케팅팀장 064) 710-3391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한영식 총괄지원팀장 064) 710-4841

노인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 22일까지 휴원

-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감염 취약지대 휴원 2주 연장 권고...긴급 돌봄 운영 -
- 도, 발열체크·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강조... 선제적 감염 예방 조치 나서 -

□ 제주특별자치도는 초·중·고교 개학과 어린이 보육기관의 휴원 기간이 2주간 연장된데 이어, 노인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 *에 대해서도 오는 22일까지 휴원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노인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 장기 요양기관으로서 동법 제23조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6일,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만65세 이상 고위험군 노인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하여 2주간('20.3.9 ~ '20.3.22) 노인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 휴원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에 보내왔다.

○ 도내 노인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은 현재 제주시 40개소(이용자수 760명, 종사자수 390명), 서귀포시 18개소(이용자수 403명, 종사자수 202명)이다.

○ 요양 기관은 휴원 권고 기간 사전조치*를 이행하면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을 10일 인정하여 필수 경비(급여비용의 60%)를 보전 받을 수 있다.

* 수급자에게 휴원안내 및 긴급돌봄 수요조사,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돌봄 제공

□ 제주도는 지난 8일 오후 4시 제주도청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협회제주지회(회장 이성덕)와 제주노인장기요양기관협의회(회장 김재현)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휴원 권고에 따른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 제주도는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의 휴원 권고사항을 설명하고, 요양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급 돌봄 수요조사를 신속히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 협회에서는 주간보호시설이 24시간 돌봄이 가능하도록 운영 지침을 변경할 것과 한시적 서비스 제공방법을 변경하되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제주도는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휴원인 만큼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주도 차원에서 다른 지원방법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출·퇴근 시 동선 최소화, 종사자 및 이용자의 발열체크 및 시설 소독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일 오후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있는 실무부서 및 관계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원희룡 지사는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때”라며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 집단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가장 취약한 고리로 파악되는 만큼 집단시설 및 활동에 대한 철저한 방역대책 수립”을 주문한 바 있다.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여성국 김형은 노인장수복지과장 064) 710-2820

제주도, 코로나19 검체검사 역량 총동원 신속 대응

- 1월 27일~3월 9일 도내기관 통해 1239건 신청·· 경험 증가· 역량 확대로 대응력 향상 -
- 도 보건환경연구원·의료기관 등 3개소 검체검사 모두 무료 진행 -

- 제주특별자치도는 첫 유증상자가 나타났던 1월 27일부터 3월 9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집계된 도내 누적 코로나19 검체 검사 신청 건수가 총 1239건이라고 밝혔다.
- 도내 검체 검사 기관은 제주도환경보건연구원과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등 3곳이다.
 - 각 기관별 해당기간 검사 건수는 제주보건환경연구원 696건, 제주대학교병원 328건, 한라병원 215건으로 집계됐다.
 - 제주도는 이와 별도로 도내에 주소지를 둔 도민이 도외 검사 기관에서 검체검사를 받은 건수는 100건이라고 밝혔다.
- 제주도는 모든 검사 역량을 총동원해 최근 확진자 추가 발생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검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 제주도는 우선 지난 2월 7일 코로나19 진단 검사기관을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 * 종전 제주보건환경연구원 1곳에서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등 2곳 추가
 -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에 재난기금을 긴급 투입해 유전자 추출기와 분석기를 추가 설치했다. 이로써 하루 처리능력이 종전 7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 검사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인력도 종전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했다.

- 아울러 도내 보건소 6개소를 검체 채취기관으로 지정하고 인력을 대거 투입해 검체 채취 수용력도 대폭 증가시켰다.
- 제주도는 도내 검체 검사 경험 증가와 역량 확대 등으로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대응 능력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 한편, 도내 의료기관 3개소에 진행된 검체검사는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 정부에서는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보건소에 신고된 자에 대해 판정결과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 다만, 지원범위는 코로나19 상·하기도 진단 검사(16만원 내외)로 제한된다.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 관련 문의: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정인보 과장 064) 710-2910

진단 검사비 지원 대상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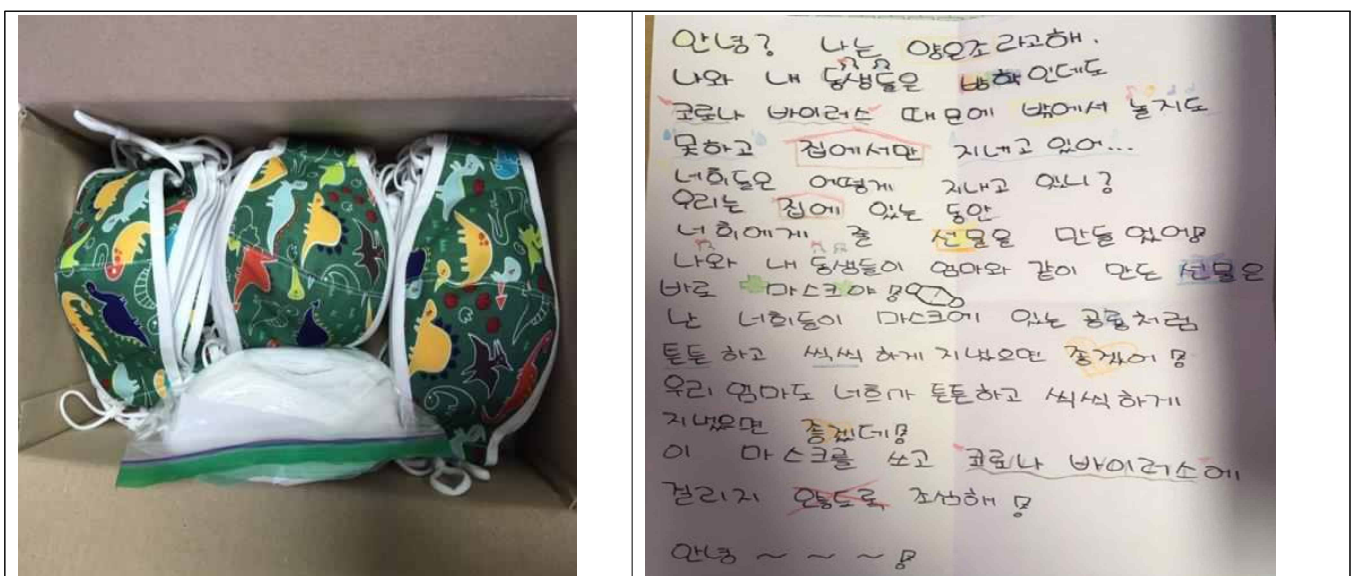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4판), 질병관리본부

제주도, 어린이부터 기업까지 코로나19 극복 동참 이어져

- 고사리손으로 만든 마스크와 손 편지부터 소주12만병 분량 알코올까지 -
- 제주은행, 임직원과 은행이 모은 성금 1억 기부 -

- 도내 곳곳에서 코로나 19 여파로 쫓겨난 지역사회를 녹이는 훈훈한 정성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정방동에 살고 있는 양은조 어린이 가족은 직접 만든 마스크(31매, 부착용 필터)와 손 편지를 정방동주민센터에 전달했다.
- 양은조 어린이(서귀포초 6)는 손 편지를 통해 “동생들과 함께 만든 마스크의 공룡처럼 씹씹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고 또래 친구들을 응원했다.
- 이 가족은 “작은 정성이지만, 함께 하면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며 마스크와 손 편지를 관내 아동양육 시설에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주민센터는 이날 관내 아동센터로 이를 전달했다.



□ 제주도는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이 9일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해 임직원 500여 명과 은행이 모은 성금 1억 원을 제주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 한편, 코로나 확산 방지에 필수적인 소독 등 방역 물품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 도내 주류제조업체인 (주)한라산소주(대표이사 현재웅)과 제주소주(대표 우창균)는 소주 원료 주정을 희석한 알코올 각각 5,000리터를 지난 5일 제주도에 전달했다.

○ 기부받은 알코올 10,000리터는 소주 12만 병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제주도는 이를 노인요양시설과 복지시설, 소방서, 아동센터 등 방역작업에 사용하고 있다.

○ 서울 소재 (주)인트로메딕(대표 조용석, 성낙범)은 살균소독제 3,000리터를 지난 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증했으며, 소독제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 관련 문의: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강민정 주민자치팀장 064) 760-4531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현원돈경제정책팀장 064) 710-2511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강동우 과장 064) 710-6080

제주도 신천지 관련 유증상자 1명 ‘음성’

- 8일 12차 조사에서 증상 확인... 현재 59명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 -

-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제주도내 신천지 신도 1명에 대한 추가적인 검체 검사 결과, 이날 오후 8시경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 이는 제주도가 오늘(8일) 실시한 12차 모니터링 과정에서 신천지 관련자 1명의 증상을 새롭게 확인하고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검사를 의뢰한 결과다.
-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27일부터 3월 8일 현재까지 제주도내 신천지 관련자(신천지 신도 643명 · 교육생 101명)를 대상으로 전화 문진을 진행하고 8일 기준 유증상자 59명을 확인했다.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 관련 문의: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정인보 과장 064) 710-2910

- <참고>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5. 감염병 예방수칙
 6.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참고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의료기관수칙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문진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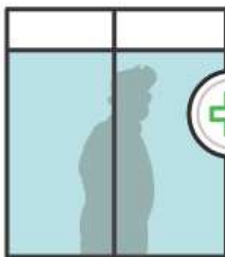
환자의 해외여행력,
의심환자 접촉력 등 반드시 확인

조사대상 유증상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

의심환자 발생 시



STEP1 선제적 격리

STEP2 코로나19 검사 실시

* 관할 보건소 신고 필수

!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자 진료구역 및 진료절차 구분하여 운영 !

참고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당신의 여행력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말해주세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



*해외여행력이란?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



우) 04520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13층 / 전화 02)734-9321~3 전송 02)738-1003 / www.journalist.or.kr

코로나19 보도 준칙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의견을 드린바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 (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

②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

⑥ (재난보도)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